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쌈의 나라

한국의 '쌈의 나라'다. 한국 음식이 가진 고유한 특징 가운데 퍼포먼스 측면에서 가장 구분되는 것은 쌈을 싸서 먹는 행위다. 한국의 쌈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2006년 기내식으로 '영양쌈밥'을 출시해 국제기내식협회(ITCA)가 주관하는 머큐리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미국 LA의 삼겹살집에서 만난 두 명의 백인 여성은 식탁 위에 있는 다양한 음식을 각자의 기호에 따라 야채로 싸 먹는 행위가 무척 흥미롭다고 했다. 그녀들은 쌈을 두고 'DIY FOOD'라고 부르며 개성 강한 미국인답게 저마다의 새로운 조합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국에서 쌈은 한국 식문화의 원형이다.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에 곡물을 싸 먹는 쌈은 영양 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선택이다. 쌈은 음식을 먹는 형식이기도 하거나와 젓가락·숟가락이 아닌 제3의 도구의 역할을 했다. 농악에 근간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쌈은 복을 구하는 기복의 의미까지 더해졌다. 자연에서 얻은 먹거리를 싸는 것은 복을 싸

는 것이라 여기며 복쌈이라 불렀다. 그래서 첫술은 언제나 쌈을 싸서 먹는 관습이 있었고, 정월 대보름날에는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김이나 취에 밥을 싸서 먹는 풍속이 있었다.

타키의 되네르케밥, 멕시코의 타코, 프랑스의 크레페와 갈레트 등 쌈과 유사한 식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스케일 면에서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한국은 우선 들과 밭에서 나는 모든 푸성귀를 쌈 채소로 활용한다.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김, 미역, 다시마, 곰피 등 바다에서 채취한 해조류까지 쌈으로 먹는다.

이외에도 전복을 얇게 저며서 쌈을 싸고(전복쌈), 육포로 쌈을 싸고(포쌈), 밀전병으로도 쌈을 싣는다(밀쌈). 근래에는 로메인, 겨자, 비타민, 치콘, 버터헤드레츠, 케일, 로즈, 치커리, 비트잎, 라디치오, 레드잎 등 외국에서 셀러드용으로 사용되던 품종을 들여와 쌈 채소에 적합하도록 개량해 거침없이 쌈을 싸 먹고 있다.

포용력이 강한 한국의 쌈 문화는 뜻밖의 이종교배를 낳기도 한다. 한국에서 명

절 선물로 '스팸'(SPAM)을 주고받는 건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 판매액은 4100억 원. 이 가운데 60%가 명절 기간 선물 세트 판매에서 올리는 매출이라고 한다. LA타임즈, BBC, 뉴욕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도 한국의 스팸 선물 문화를 기사로 다뤘다.

그런데 스팸을 폄하하는 한국인도, 스팸의 인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음식의 운명은 탄생과 전파보다 어떤 환경에서 정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스팸의 운명은 2002년부터 달라졌다. CJ제일제당은 김원희, 에릭, 한예슬 등 당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배우들을 스팸 광고모델로 기용한다. 그리고 스팸과 쌀밥의 만남을 강조하며 '따끈한 밥에 스팸 한 조각'이라는 기막힌 카피를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얇게 저며 구운 스팸에 싸 먹는 장면은 한국인의 정서를 관통했다.

정확히 이때부터였다. 돼지고기의 부산물로 만든 가공육에 불과했던 스팸은 순식간에 한국 식문화의 변방에서 중심

으로 파고들었다. 밥, 김치, 스팸이라는 삼위일체는 전국의 수많은 일인 가구와 자취생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 메시지는 70~80년대 최고의 도시락 반찬이었던 '분홍 소시지'의 추억을 지워 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스팸은 더 이상 캔에 든 값싼 햄이 아니다.

맛의 도시 광주가 낳은 향토 음식 가운데 외지인이 보기에 가장 독특한 음식은 '상추튀김'이다. 길거리 분식집에서 파는 값싼 튀김을 한입 크기로 잘라 상추에 싸서 양파와 청양고추를 곁들여 먹는 상추튀김은 너무 어처구니없어 오히려 독특한 음식이다. '튀김쌈'이라는 당연한 조합 대신 '상추튀김'이라는 모호성이 오히려 상추튀김의 유명세를 부채질했다.

내가 아는 광주 출신의 한 편집자는 상추튀김을 생각하면 늘 최루탄 냄새가 난다고 했다. 총장로 일대에 최루탄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던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던 그 연배에게 남아 있는 특별한 기억이다. 한국의 쌈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서사를 품고 있다. 심지어 쌈에 곁들이는 양념 이야기는 미처 꺼내지도 못했다.

<양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눈(眼)의 날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우리는 기념일을 좋아한다. 한글날, 국군의 날, 노동자의 날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삼겹살 먹는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고 누군가는 그날들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한다. 심지어 결혼 기념일을 잊었다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도 하니 뭔가 뜻을 새겨 두는 날은 그냥 쉽게 넘길 것은 아닌 듯하다.

녹색창에 '눈의 날'을 검색해보면 '국민 모두가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눈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갖도록 하며, 잘못된 사회 관념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키는 날'. 1956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매년 11월 11일이다'라고 적혀 있다.

11월 11일 뭔가 생각나는 날이 있지

않은가? 바로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빼빼로데이'가 바로 '눈의 날'과 같은 날이다. 나는 둘째 딸에게 유치원 때부터 11월 11일은 '눈의 날'이라고 세뇌를 시켰더니 몇 년 전에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가 빼빼로 먹는 날과 눈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별별 날이 다 있다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는 11월 11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과거를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이벤트이어서 그날 눈 건강을 알리고 '뽀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눈을 기념하는 것이 우선 순위와 홍보에서도 밀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한안과학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세계 눈의 날(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에 맞추어 학회 차원의 홍보와 대국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10일은 49회 눈의 날로 '100세 시대 실명 예방, 안저 검사로 빠르게 쉽게'라는 슬로건으로 미디어 등에서 크게 홍보를 하였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에서 황반 변성 13.4%, 녹내장 3.4%, 당뇨

병 환자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19.6% 관찰됐다. 특히 황반 변성은 기존에 비해 두 배 높게 관찰됐고, 70세 이상에서는 네 명당 한 명에서 관찰됨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안저가 어려운 병의 특성상 초기에 실명 유발 질환이라고 부른다. 이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안저 촬영이 필수이고, 안저는 시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부분인 망막, 망막 혈관, 시신경 유두 등을 종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또 안저검사는 이런 망막이나 시신경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본 검사이다.

그런데 아주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부작용 없이 1초 내외로 가능하며,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조기에 감별할 수 있는 검사가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일부 공무원 검진 등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받고 있는 건강 검진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하여 노화와 관련이 깊은 녹내장, 황반 변성의 유병율이 각각 99.0%, 104.8%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기대 수명이 82.7세이고 요즘 장례식장

에 가보면 90세 이상인 고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노인성 안질환인 녹내장과 황반 변성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완치가 어려운 병의 특성상 초기에 발견해 잘 관리하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인성 안질환의 급증은 국민 삶의 질을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빼빼로데이에 밀려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되지 못 하고 있지만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 눈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니 이때를 우리도 함께 따르며 어떻게 한다, '10'이라는 숫자를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보면 눈꺼풀과 눈의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둘째 주'는 눈이 두 개라는 의미로, '목요일'은 나무 목(木)자가 눈 목(目)자와 음이 비슷하므로 기억하기도 편하다. '눈의 날'이 있는 가을의 중심 10월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을 한 번쯤 바라보며 눈에 어떤 불편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보고, 40세 이상이면 노인성 안질환 여부의 확인을 위해 안저 검사를 받아보면 어떻게 조심스럽게 관해 본다.

기고

효율적인 광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 방안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광산군을 제외하고 4개 구청이 민간 업체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준직영제 방식이다. 자치구별로 한두 개 업체가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수년간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또다시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한 자치구는 전문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시민환경단체, 기자, 공무원 등 11인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추진 방안' 관련 거버넌스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안정성, 투명성, 예산 절감'을 기본방향으로 자치구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안의 모델을 도출하고자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허심탄화하게 의

견을 나누면서 광주시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의 운영 방식과 계약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도 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창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 논의의 결과 해당 자치구에 가장 부합하는 운영 방식과 계약 방식을 정하였고, 당장 차기 계약 때부터 공개 경쟁 입찰을 적용하기로 하여 오랫동안 이어져 온 수의 계약에 대한 외부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향후 추진 과제로 자치구별로 나누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광주시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여 대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지방 공단 위탁 운영은 사기업이 아닌 공적 기관의 성격에 갖게 되어 운영이나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된다. 특히, 광주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통합관리는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도 부응하며 경영 마인드 도입이 용이하다. 또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고 비상시, 즉각적인 응급 체계를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까지 광주환경공단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당양의 음식물 처리업체가 업종을 변경함에 따라 광주시 전체 대형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는데, 이에 더해 광주 공공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상·하반기 정기 검사 기간에 공공 처리 시설 두 곳의 가동이 중단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게다가 광주 SRF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어 항등 위생매립장의 수명도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환경공단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일원화 할 경우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다.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시는 30여 년 전부터 5개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전도시공사에서 대행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예산 절감, 미화원 고용의 안정성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해마다 광주 5개 구에서 민간 업체에게 대형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총 467억여 원이다. 작년 기준으로 대전과 광주의 대형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약 69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광주도 대전처럼 광주환경공단으로 통합

하여 위탁 운영한다면 적어도 이 차액 부분인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민간 업체 소속인 가정환경관리원 비정규직 550여 명이 공단 소속으로 정규직화 되어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다. 제2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광주환경공단이 광주시 5개구 생활폐기물의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와 시가 광주환경공단 통합 위탁 운영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분담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예산, 민원, 노사 문제 등 정소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전담하는 관리 체계가 실현된다면, 전국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김치타운·F1경주장 투자 혈세 낭비 없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자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김치타운과 F1경주장에 추가 투자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나 중복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김치타운과 맞닿은 남구 임암동 380번지 일원 2만 1317㎡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구배 예정 가격은 250억 원이다. 시는 이 부지를 일단 김치타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후 2024년부터 김치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치타운은 지난 2010년 개관 이래 김장철에만 반짝 시민들이 찾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양대 행사인 김치축제와 김장대전 등에 참여하는 시민은 5만 명 수준으로 이 시기를 제외하면 하루 방문객은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인건비 등 운영에 연간 17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수입은 1억 원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도 역시 F1 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참가팀들이 머물렀던 팀빌딩을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로, 패독빌딩을 직업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이 20곳이 넘고 호남권 학생들을 위한 400억 원대 순천 직업 체험관 등과 겹친다는 점에서 중복·과잉 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치타운의 경우 예산 확보 방안이나 구체적 활용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해 공유 재산 심의 과정에서 우려가 쏟아졌다고 한다. F1 경주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적자 경영을 피할 수 없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음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수익 개선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는 또 다른 애물단지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시도는 더 이상 예산 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사업성 분석과 활성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빨리 통과시켜야

군 공항과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인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군 소음법 제정 촉구에 뜻을 모은 건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성 광주시장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옛것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법의 즉각적인 제정 촉구와 균용비행장 및 군사적용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은 법률 부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

이다. 아무리 소음 피해가 커더라도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워 주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 건수는 총 25건(15만3808명, 1705억 원)인데 이 중 8건(3만9620명, 945억 원)은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17건(7만4843명, 225억 원)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실 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때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군 비행장들의 소음이야말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민생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 하루빨리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 역시 군 소음법이 원활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에 후속 조치를 건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극장 무대 위.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다. '입체낭독극장' 무대에서 배우들이 차분히 읽어 나간 작품은 칼국수집 딸이었던 김애란 작가의 단편소설 '칼자국' (소설집 '침이 고인다' 수록)이었다. 칼국수집 '맛나방'을 운영하며 가족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였던 엄마의 장례식장을 지키는 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역적스럽지만 따뜻했고 해학이 넘쳤던 엄마를 추억하는 내용의 짧은 소설. 책으로도 읽었지만 '육성'으로 들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귀로 읽는 책

'어머님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겨워 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 있다. 어머니는 칼 하나를 25년 넘게 써 왔다. 썰고, 가르고, 다지는 동안 같은 종이처럼 얇아졌다. 찢고, 삼기고, 우물거리는 동안 내 창자와 내 간, 심장과 콩팥은 무력무력 자리냈다. 나는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담담한 목소리에 실려 오는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줬고, 객석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귀로 읽는' 오디오북이나 낭독 행사가

최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오디오북은 2429종으로 전년 대비 418%나 늘었다고 한다. 조정래 작가의 '천년의 질문'은 국내 최초로 '출간 전 오디오북 연재'를 시도했고 30만 명 이상이 정취했다. 김영하는 자신의 작품 '살인자의 기억법'을 직접 낭독했다. 배우 이병헌이 낭독한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도 큰 인기를 모았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낭독 행사를 열었던 푸른연극마을은 29일부터 11월12일 까지 '시민 낭독극 열전' (씨어터 연바람,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 협진회의 '연수 좋은 평생 누군가를 겨워 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 있다. 어머니는 칼 하나를 25년 넘게 써 왔다. 썰고, 가르고, 다지는 동안 같은 종이처럼 얇아졌다. 찢고, 삼기고, 우물거리는 동안 내 창자와 내 간, 심장과 콩팥은 무력무력 자리났다. 나는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담담한 목소리에 실려 오는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줬고, 객석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귀로 읽는' 오디오북이나 낭독 행사가

오디오북에 아직 익숙지 않은 사람이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가면 좋을 듯하다. 라이브러리파크 오디오북 체험 공간에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들을 수 있다. 단말기를 통해 배철수·육성달빛 등의 목소리로.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